

한국 화교의 문장내적 코드전환 구조와 통사론적 접근

김선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화교의 한중 문장내적 코드전환(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구조를 바탕으로 통사론적 이론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한국 화교의 韓中 문장내적 코드전환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코드전환 양상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다면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국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문장내적 코드전환에 관한 통사론적 이론을 우선 살펴보고, 한중 문장내적 코드전환의 형태통사론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장 내적 코드전환 이론

이중언어의 코드전환 현상을 통사론적 이론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Blom & Gumperz(1972)이다(MacSwan 2013:324). 통사론적 논의는 촘스키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 기대어 코드전환의 원리와 제약을 제시한 것으로 상당어구 제약(Equivalence Constraint), 자립 형태소 제약(Free Morpheme Constraint), 행렬-프레임 이론(Matrix Language Frame), 최소주의적 접근법(Minimalistic approach) 등이 있다.

대표적인 초기 이론은 Poplack(1980, 1981)의 상당어구 제약과 자립 형태소 제약이다.¹ 상당어구 제약은 두 언어의 구성 요소가 유사하고 어순이나 통사 범주가 통사 규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코드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두 언어의 표층구조가 서로 사상(mapping)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코드전환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코드전환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에서 코드전환이 가능한 것은 영어와 스페인어가 상당어구 제약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1) 영어-스페인어 코드전환(Sankoff & Poplack 1981:6)

English	I	seen	everything	'cause	I	did	not	take	anything
	↓	↓	↓	↓	↓		↓	↓	↓
Spanish	Yo	vi	todo	porque	yo		no	cogi	nada.
Code-switching	I	seen	everything	'cause			no	cogi	na

다음으로 자립 형태소 제약 조건이다. 이것은 어휘 형태와 의존 형태소 사이에는 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1 Sankoff & Poplack(1981)는 Poplack(1980, 1981)의 이론이 가진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촘스키의 확대표준 이론(expanded standard theory)에 기댄 '위첨자 기제(superscripting mechanism)' 이론을 제시하였다. Poplack의 이론에 대한 설명은 MacSwan(2013:325-6) 참조.

드 전환이 일어날 수 없고 한 언어의 형태소가 다른 언어에 음운론적으로 통합되었을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2가) 동사 ‘run’ 뒤에는 ‘-ing’의 기능을 가지는 스페인어 의존 형태소 ‘eando’가 실현되지 못하지만 음운론적으로 통합된 (2나)는 가능하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간에는 음운론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드전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 가. *run-eando ‘running’
 나. flipeando ‘flipping’ (Sankoff & Poplack 1981:5)

행렬-프레임 이론은 Joshi(1981), Azuma(1993), Myers-Scotton (1993) 등에서 논의된 것이다(MacSwan 2013:331). 코드전환 구조의 경우 한 언어는 행렬언어(matrix language)가 되고 다른 언어는 삽입언어(embedded language)가 되며, 행렬언어는 내용어(content words)와 기능 요소(functional elements)가 적용될 표층구조의 위치를 결정하는 언어이다(Azuma 1993). 이것은 Poplack의 상대어구 제약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중언어의 통사구조가 행렬언어의 구조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의 행렬 언어는 일본어의 프레임에 적격하지만 (4)의 경우는 (4나)의 정관사 ‘the’가 하위범주화 충돌(subcategorization clash)을 일으켜 (4가)로 실현된 구조이다. 일본어가 행렬언어가 되고 영어가 내용어인 경우, 정관사와 명사가 결합한 영어 명사구는 일본어 명사구 구조와 충돌하므로 행렬언어가 우선되어 (4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 (3) Uchi wa *whole chicken* o kau noyo.
 we topic whole chicken acc. buy tag
 ‘We buy a whole chicken’ (Azuma 1991:1077)

- (4) 가. Watashi ga katta hon wa takai.
 나. *Watashi ga katta *the* hon wa takai.
 I nom. bought the book topic expensive
 ‘The book I bought is expensive’ (Azuma 1991:1081)

츨스키의 최소주의(minimalist)에 근거한 코드전환 구조 분석은 MacSwan(1999, 2013)이 대표적이다. 코드전환 구조를 최소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으나 Malik(2017)은 MacSwan(1999)의 이론이 상대어구 제약이나 자립 형태소 제약을 최소주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 외에는 의의를 두기 어렵다는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²

최재오(2006:272)는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코드전환 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Choi(1991:893)의 ‘switch-alpha’를 수정하여 (5)와 같은 코드전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³

2 이 연구는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논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3 스위치-알파 이론은 행렬-프레임 이론과 상대어구 제약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언어 결합 제약은 행렬-프레임 이론의 구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으나 그 기준이 불분명하여 코드전환이 가능한 문장과 불가능한 문장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5) Switch-alpha

어떠한 언어 구성요소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이중언어 사용 중의 코드전환 발화에서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 특정 언어 결합 제약이 충족될 경우

나. 이중언어 사용 제약 조건이 지켜질 경우.

(5가)의 ‘특정 언어 결합 제약’은 특정 언어의 구조적 특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Choi(1999)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코드전환은 개별적 언어 쌍들의 완전성(the particular-language-pair integrity)이 유지된다면 어떤 것이든 어느 장소에서든 모든 요소는 구문 어디에서나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5나)의 ‘이중언어 사용 제약 조건’은 ‘일부 배타적인 어휘항목과 의존형태소들은 청소년기 이후의 코드전환 발화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년기와 청소년기까지 사용하던 이중언어의 코드전환 양상이 성년기에 이르면 그 빈도나 양상이 줄어들고 제한적으로만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장 내적 코드전환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론적 논의는 여러 이론과 제약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제 한국 화교의 문장 내적 코드전환이 어떠한 구조와 제약을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한국 화교의 문장 내적 코드전환의 형태통사적 특성

한국 화교는 코드전환의 교체형과 변이형이 모두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이중언어 공동체이다. 특히 변이형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에만 사용하는 임시적 통사구조가 아니라 화교 2세인 50대 부부도 상용하는 화석화된 표현이다. 이러한 코드전환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2장에서 언급한 여러 이론들이 한국 화교의 코드전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상당어구 제약은 두 언어가 표층구조에서 사상되어야 코드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는 표층구조가 일치하지 않아도 코드전환이 발생하였다. (6가)의 ‘切書了’ 구조와 (6나)의 ‘책을 잘랐다’의 표층구조는 전혀 일치하지 않으나 (6가)처럼 코드전환이 발생하였다.

(6) 가. 切書了단 말이에요. (=16가)

나. 책을 잘랐단 말이에요

이처럼 두 언어가 표층구조에서 사상되지 않아도 코드전환이 실현되는 경우가 여러 언어에서 확인되었고(Choi 1991, Nishimura 1985, Romaine 1985 등), 한중 코드전환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상당어구 제약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간에는 코드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자립형태소 제약이다. 한국어는 의존형태소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므로 한중 코드전환에서는 자립형태소 제약이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선효(2017,

2018)에서는 코드전환 유형으로 한국어 중심구조, 중국어 중심구조, 화교식 변이구조로 나누고 각 구조는 필수 교체형과 수의 교체형으로 나눈다. 이들의 유형에서도 자립형태소 제약이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그 중의 일부 예를 제시하면 (7)와 같다.

- (7) 가. 統計 老師를 엄청 싫어 했어. (C12)
 나. 媽媽들이 看完了以後 心痛잖아. (A63)
 다. 泄題했어. (C102)
 라. 아니 내가 餓거든. (A58) (아니 내가 배고프거든)

셋째, 행렬-프레임 이론은 하나의 언어가 행렬 언어가 되면 다른 언어가 내용어로 삽입되어 코드전환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선효(2017)의 한국어 중심구조나 중국어 중심구조와 유사하다. 코드전환이 실현된 문장이 어느 언어의 구조를 기본으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화교의 한국어 중심구조나 중국어 중심구조 언어만 볼 때에는 행렬-프레임 이론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화교식 변이구조는 이러한 행렬-프레임 이론을 위배한다. (8가)의 화교식 표현은 (8나)의 중국어나 (8다)의 한국어의 어느 구조와도 같은 틀을 형성하지 못한다. 즉 (8가)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조가 섞인 변이구조이다. (9가)도 중국어 중심구조처럼 보이지만 중국어의 구조는 (9나)와 같은 피동문을 요구한다. 즉 중국어처럼 보이지만 중국어 구조가 파괴된 변이구조인 것이다.

- (8) 가. 那個, 유재석出來的ㄴ데. (A8)
 나. 那個, 有유재석의.
 다. 이거, 유재석 나오는데.
 (9) 가. 那樣的聲音也都會進去ㄴ데. (E44)
 (이런 소리들도 전부 녹음 되는데)
 나. 那些聲音也都會被錄進去.

이처럼 한국 화교의 코드전환은 행렬-프레임 이론에 위배되는 화교식 변이구조가 화석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XI-2형 변이형도 하위범주화 충돌이 아니므로 행렬-프레임 이론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중언어 화자의 코드전환은 대부분 청소년기까지는 사용하고 성년기에 접어들면 거의 줄어든다는 이중언어 사용 제약 조건이다. 최재오(2006)에서는 한영 이중언어 화자들이 성년이 되면 코드전환을 최소화하고 한국어나 영어를 정확히 구사하려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은 화교 2세인 50대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3세인 30대에서도 적극 사용하여 성년기에 이르러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화교의 코드전환은 성년기에 이르러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특징을 보인다.⁴ 이런 현상은 다른 이중언어 공동체의 코드전환과

4 한국 화교의 변이구조는 Muysken & Smith(1995)에서 제시한 확대 피진어(expanded pidgin) 또는 피진어의 한 유형에 근접하지 않을까 추정한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은 성년기에 이르러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변이된 코드전환 구조가 화석화되고 이런 화교식 변이구조가 전체 문장의 10.8%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 화교의 이중언어 현상이 다른 이중언어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김선효 2017:54).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이 지닌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의 특성

가. 형태적 특성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간의 결합에 제약이 없다.

나. 통사적 특성

① 표층구조의 상당어구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렬언어의 틀이 변이되거나 변이구조가 화석화되기도 한다.

다. 사회언어학적 특성

성년기에 이르러도 we-code가 형성되면 코드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42)의 특성은 한국 화교의 코드전환이 다른 이중언어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코드전환 양상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한중 코드전환은 형태적, 통사적, 사회언어학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화교 공동체 내에서 세대를 이어 전수되고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의 구조를 분석하고 형태통사적 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 화교의 문장 내적 코드전환 유형은 실현 양상에 따라 필수 교체형, 수의 교체형, 변이형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변이형은 한국 화교 언어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구조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한국 화교의 코드전환은 촘스키의 보편문법에 기댄 상당어구 제약, 자립 형태소 제약, 행렬-프레임 이론이나 스위치 알파 이론에 위배되었으며 기존의 다른 이중언어 코드전환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부산 화교 3세의 일상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타 지역 구 화교 공동체의 담화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변이형은 지역마다 부분적 차이가 있어 여러 지역의 화교 담화를 구축한다면 화교 언어의 통사적 구조를 정립할 수 있고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의문점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다. 화교 언어 말뭉치 구축은 경제적 비용을 요구되므로 향후 연구에서 말뭉치 구축 및 한국 화교의 언어적 특성을 체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소영(2011), 「해외거주 한국 화교의 한국어 사용현황 연구」, <어문연구> 40권, 한국어문교

- 육연구회, 5쪽~28쪽.
- 김소영(2012), 「이중언어 사용자의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원인 분석」, <한어문교육> 26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7쪽~236쪽.
- 국립국어원(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문화관광부.
- 김경국·최승현·이강복·최지현(2003), 「한국의 화교연구 배경 및 동향 분석」, <중국인문과학> 26호, 중국인문학회, 495쪽~515쪽.
- 김선효(2017),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 유형과 분포」, <어문연구> 1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쪽~59쪽.
- 김선효(2018), 한국 화교의 한중 코드전환 구조의 분석, <어문학> 139, 한국어문학회, 1~19쪽
- 박수현(2011),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사용의 연구」,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 박은경(1986),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 서나래(2014), 「한국 화교의 문화 혼종성 교육 경험과 정체성 형성: 국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6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53쪽~82쪽.
- 손희연·서세정(2008), 「한국 화교 이중언어 화자들의 이중언어 사용 연구」, <사회언어학> 16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85쪽~211쪽.
- 송승석(2010), 「한국 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 동아시아 구역 내 한국 화교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55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163쪽~199쪽.
- 안미정·우양호(2016), 「한국의 다문화 사회론과 정주자로서 화교: 정체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양도시문화교섭학> 15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149쪽~176쪽.
- 엄익상(1999), 「한국화교 방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제언」, <중국어문학논집> 11호, 중국어문학연구회, 53쪽~70쪽.
- 여병창(2013), 「화교 디아스포라의 한반도 이주와 언어 정체성 고찰: 한국 화교의 이중언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52호, 한국중문학회, 263쪽~293쪽.
- 왕언페이(2013), 동아시아 속의 한국 화교: 냉전체제와 조국 의식, 학교방.
- 이재광(2004),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화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30호, 중국학연구회, 571쪽~591쪽.
- 이해우·박용진(2004), 「전라북도 화교의 세대 간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41호, 53쪽~70쪽.
- 장상언(1998), 「화교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10호, 대한일어일문학회, 349쪽~360쪽.
- 조세현(2013),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
- 최재오(2006), 한영 이중언어 구사자들의 Code Switching 연구, <이중언어학> 31호, 이중언어학회, 253쪽~277쪽.
- 尹佑晉(2007), 「韓國釜山華僑의榮成方言与中國榮成本土方言의語音比較研究」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 Azuma, S. (1993). The frame-content hypothesis in speech production: Evidence from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Linguistics* 31, 1071-93.

- Blom, J. P. & Gumperz, John J. (1972). Social meaning and structure: code-switching in Norway. In John Gumperz and Dell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Reinhart, Winston.
- Choi, J.(1999), Switching: A Case Study of Korean-English Bilinguals,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5, 115-136.
- Cromdal, J. (2005), Bilingual order in collaborative word processing: on creating an English text in Swedish, *Jouranl of Pragmatics* 37, pp.329~353.
- Gumperz, J.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shi, Arvind (1985). Processing of sentences with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In Donald R. Dowty, Lauri Kattunen, and Arnold M. Zwicky(eds.), *Natural Language Parsing: Psychological, Computation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Swan, Jeff (1999). *A Minimalist Approach to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New York: Garland Press.
- MacSwan, Jeff(2013), Code-Switching and Grammatical Theory, In Tej K. Bhatia & William C. Ritchie(eds.) *The Handbook of Bilingualism and Multilingualism*(2nd ed.), Blackwell Publishing, 323-350.
- Malik, Nazir Ahmed(2017), No mixed grammars, no phonological disjunction: A new perspective on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Lingua* 194, pp. 51-66.
- Musyken, P. & N. Smith(1995), The study of pidgin and creole languages, In Arends, J., Muysken, P. & N. Smith (ed.), *Pidgins and Creoles*,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Myers-Scotton, Carol (1993). *Dueling Languages: Grammatical Structure in Codeswitching*, Oxford: Clarendon Press.
- Nishimura, M.(1985), Intrasentential Code switching in Japanese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oplack, Shana (1980). 'Sometimes I'll start a sentence in Spanish y termino en Español': Toward a typology of code-switching. *Linguistics* 18, 581-618.
- Poplack, Shana (1981). The syntactic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 of code-switching. In R. Durán (ed.), *Latino Language and Communicative Behavior*. Norwood, NJ: Ablex.
- Romaine, S.(1985), *Bilingualism*(2nd ed.), MA: Blackwell.
- Sankoff, David & Poplack, Shana (1981). A formal grammar for code-switching. *Linguistics* 14, 3-45.

한국 법무부 자료실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4&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1&strNbodCdGbn=